

카밀로 호세 셀라의 『두 망자를 위한 마주르카』를 통해 본 스페인 갈리시아의 특징적 요소들*

송 선 기

(조선대학교 부교수)

◆ 국문초록

카밀로 호세 셀라의 초기 작품들과 후기 작품들에는 자신의 고향 갈리시아가 공간적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며, 이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갈리시아의 특징적 요소들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작품이 『두 망자를 위한 마주르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에 드러나는 갈리시아의 특징적인 요소들은, 첫째, 작가는 갈리시아의 시골마을에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을 배치시키고 그들에게 갈리시아 어와 이 지역 방언들을 말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갈리시아적인 특징의 일부를 보여준다.

둘째, 이 지역의 특징적 자연현상인 쉬지 않고 내리는 비에 대한 수십 번의 묘사를 통해 갈리시아성을 구체적으로 체현한다.

셋째, 또한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이 지역의 여러 도시들과 마을들의 이름들, 강 이름들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특히 이 지역 출신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명들을 거론함으로써 갈리시아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

넷째, 아울러 작품에는 갈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떠도는 수많은 신화와 전설 그리고 미신과 같은 다양한 이 지역의 특징적 요소들을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이렇듯 이 작품의 거의 모든 하위 주제들과 소재들이 갈리시아와 관계된 것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셀라가 갈리시아 출신 작가로서의 정체성의 일부를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주제어 : 셀라, 두 망자를 위한 마주르카, 갈리시아, 지역의 특징적 요소들

* 본 논문은 2017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들어가는 말

산과 들의 전원적 정서와 해양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닌 이베리아반도의 북서쪽 끝 갈리시아는 스페인의 여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문화와 역사를 지녔으며, 종교나 민속, 사회적 환경,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그들만의 고유한 색채를 간직해 왔다. 특히 갈리시아는 스페인 문학 태동기에 수많은 음유시인들의 무대였으며, 이 지역 출신 작가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지역 현실을 묘사함으로써 스페인 내에서 고유한 문학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¹⁾ 본 연구는 20세기 스페인의 대표적인 작가들 중의 한 사람이었던 카밀로 호세 셀라 트롤록(Camilo José Cela Trulock)의 문학세계에 대한 관심과 작품 속에서 이 작가의 고향 갈리시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작가 셀라의 문인으로서의 출발은 시 장르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산문 작가, 여행기작가, 사전편찬가, 등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시도하였지만 그의 문학여정에서의 절정은 역시 소설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셀라는 생애의 대부분을 마드리드에서 보냈으며 그의 작품들의 공간적 배경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는 않지만²⁾ 자신의 고향인 갈리시아는 이 작가의 많은 작품들에서 공간적 배경이 되며, 주제와 소재로 나타난다. 환상과 상상력 그리고 실험 정신으로 가득한 그의 소설들에서 셀라는 고향 갈리시아를 미화 하거나 이

-
- 1)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갈리시아 문학은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Rosalía de Castro (1837-1885)의 그 지역의 언어로 그 지역의 토착적인 정서를 표출한 시들로 대변된다. 또한 비평가이며 역사가였던 마누엘 무르기아(Manuel Murguía)의 다양한 저술들에서 지역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혁신적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라몬 마리아 델 바예-인클란(Ramón María del Valle Inclán) (1869-1935)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지역적 배경과 더불어 갈리시아 세계의 현실은 문학을 통해 그려진다. 특히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의 『갈리시아 시가집』(*Cantares gallegos*)이나 에밀리아 파르도 바산(Emilia Pardo Bazán)의 『나의 대지』(*De mi tierra*) 등의 작품들이 이 지역만이 간직하고 있는 우수와 신비에 찬 파노라마를 보여준다.
- 2) 그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파스쿠알 두아르테의 가족』(*La familia de Pascual Duarte*, 1942)은 바다호스-엑스트레마두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벌집』(*La Colmena*, 1951)과 『산 카밀로 1936』(*San Camilo de 1936*, 1969)은 스페인의 중심 마드리드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상화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갈리시아 민중들의 일상과 삶, 그리고 죽음, 고통과 불행, 그리고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적 측면들을 작품들에 반영해 왔다.

본 논문은 그의 대표적 소설작품들 중 한 편으로 평가받고 있는 『두 망자를 위한 마주르카』(*Mazurca para dos muertos*, 1983)가 작가 셀라의 유년시절의 성장지였으며 고향인 갈리시아 지역에 대한 그의 애착과 관심의 발로에서 씌어졌음을 확인하며, 그가 갈리시아 출신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 작품의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작품에 드러나는 갈리시아라는 지역의 특징적 자연 현상의 하나로서 비, 인간들의 삶, 작품 속에 그려지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 언급, 이 지역의 전설과 신화, 그리고 작품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갈리시아어를 예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소설이 갈리시아만의 고유한 지역적 요소들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본 연구의 목표가 될 것이다.³⁾

II. 『두 망자를 위한 마주르카』에서의 갈리시아의 특징적 요소들

1. 셀라의 작품들과 『두 망자를 위한 마주르카』에서의 갈리시아

스페인에는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및 지리적인 다양성뿐만 아니라, 언어적 다양성에 기인하는 지역적 현상이 존재하는데 그 지역적 현상의 특징적 측면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이 바스크, 카탈루냐, 그리고 갈리시아이다. 갈리시아는 비고, 라 코루냐, 루고, 오렌세, 폰테베드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중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역사, 문화, 지리, 기후적으로 스페인의 여타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들을 보여 왔고 그들

3) 본 연구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을 배제하고 이 작품에 드러나는 지역적 특징인 이 지역의 자연현상이나, 전통적 가치, 의식, 풍습, 그 지역민들의 삶과 연결된 부분들에 대한 조명, 즉 작가인 카밀로 호세 셀라의 각별한 애착이나 사랑으로 문학적 창작물을 통해 개별적으로 표출되는 순수하게 문학적인 측면의 고찰에 한정한다.

만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해 왔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스페인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그러한 노력은 결실을 보지 못해왔다. 하지만 1920년에 오렌세에서 창간된 문화 잡지인 ‘노스(Nos)’를 중심으로 한 갈리시아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면서 갈리시아의 동질성과 민족성이 회복되기에 이르며, 이 잡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멤버들은 당시 갈리시아 문화계의 거장들로서 갈리시아 문화의 보급에 주력하였다. 특히 ‘노스’의 지도자였던 비센테 마르티네스 리스코(Vicente Martínez Risco)는 “정치적으로 갈리시아만의 지역주의를 확립하는데 앞장섰으며, 갈리시아의 문화가 켈트족에서 유래하였다고 천명함으로써 스페인의 여타 지역과 구분되는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였다.”⁴⁾ 그 후 1981년에는 갈리시아 자치법령이 승인되고 스페인 내의 자치공동체로 정의되게 된다.

갈리시아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의 지역 축제일⁵⁾로 스페인의 여타 자치공동체와는 구분된다. 특히 갈리시아는 문화적 측면에서 스페인의 타 지역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심오한 풍속을 지녔으며, 다양한 민간신앙과 미신들과 신화와 전설들의 땅이며, 넘쳐나는 축제와 세속적 제 의식 그리고, 특히 산티아고의 길(Camino de Santiago)의 성지순례로 유명한 그들만의 고유한 지역적 특징들을 보존하고 있다. 주디스 게일(Judth Gale)은 지역성의 종류를, 역사적, 정치적, 언어적, 지리적, 문학적 지역성으로 구분하면서, 우리가 이 작가의 작품 분석에 필요한 준거로 사용되게 될 문학적 지역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문학적 지역성은 한 작가가 하나의 특정지역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표현된다. 그 작가의 이상은 개별적인 것이며, 그의 고향에 대한 사랑, 지역의 풍습과 풍속에 대한 사랑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특정지역의 경계 내에서의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그 자체의 설

4) 존 H. 엘리엇, 편집, 『히스패닉 세계』 김원중 외 옮김, 2003, 385쪽.

5) 그 하나는 갈리시아 문학의 날과 갈리시아 조국의 날인데 갈리시아 문학의 날은 매년 5월 17일에 개최되고 갈리시아 조국의 날은 매년 7월 25일에 개최된다. 갈리시아 문학의 날은 1963년 갈리시아 한림원(Real Academia Gallega)에 의해 갈리시아 문학의 문화적 르네상스를 이끄는 데 중요한 작품인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의 『갈리시아의 노래』출판 100주년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명과 함리성을 갖는, 개인적인 조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감정이며, 열망이며, 애정이다.⁶⁾

계일의 정의에 부합하듯 작가 셀라는 『두 망자를 위한 마주르카』를 통해 자신의 고향 갈리시아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사랑 그리고 관심을 바탕으로 그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관찰해 왔으며 경험해 온 것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셀라가 갈리시아를 만난 것은 라 코루냐의 이리아 플라비아(Iria Flavia)의 델 파드론이란 마을에서 1916년 출생하던 때이다. 셀라의 일족은 친가 외가 두 쪽 모두 갈리시아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의 가족은 그가 9살 때인 1925년 마드리드로 이주하였다. 한편 작가 셀라의 고향 갈리시아에 대한 작품에서의 천착은 단편집 『흘러가는 저 구름들』(*Esas nubes que pasan*, 1945)을 출발점으로 『갈리시아인과 그 집단 그리고 국수주의적 기록』(*Gallego y su cuadrilla y otros apuntes carpetovetónicos*, 1949)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셀라의 초기 여행기 중 하나인 『미뇨에서 비다소아까지』(*Del Miño al Bidasoa*, 1952)는 갈리시아 시골길을 도보로 여행하면서 보고 겪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갈리시아에 모든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미』(*La rosa*, 1959)는 작가가 유년의 시기를 보낸 모계의 고향인 이리아 플라비아와 부계의 고향인 투이(Tuy)에서의 생활과 그 기억을 글로 쓴 것인데 셀라는 이 작품에서 감성적이고 눈물이 많은 그의 어린 시절 응석받이로서의 개인적 성향과 이곳에서의 삶에 대해 이상적이고 동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장미』와 『두 망자를 위한 마주르카』에 작가의 고향 갈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다리오 비야누에바(Dario Villanueva)는 “이 두 작품에 드러나는 갈리시아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갈리시아로부터 자신의 작품을 위한 풍경과 인물들을 끝없이 발췌해 내고 있다.”⁷⁾고 그 밀접한 관계성을 확인하고 있다. 『장미』이후 약 20여 년 동안, 즉 1983년 『두 망자를 위한 마주르카』를 발표하기 전까지 셀라는 자신의 고향에 대해 가끔씩 다소 주변인으로서 글을 썼으며 따라서 갈리시아에 대한 언

6) Judith E. Gale, *El regionalismo en la obra de José María de Pereda*, Madrid: Editorial Pliegos, pp. 21-22.

7) Darío Villanueva, “La personalidad y el arte literarios de Camilo José Cela”, *Boletín Aepe*, Número 32-33, p. 51.

급이나 묘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갈리시아라는 지명은 작가가 1960-70년대에 쓴 여러 편의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이후 1980년대, 마드리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자신의 고향 갈리시아의 이리아 플라비아는 그의 공식 거주지가 되고, 이곳 환경에 몰입해 가면서 90년대에는 당연히 그의 소설의 무대, 즉 공간적 배경으로 갈리시아가 등장하는 일이 많아지고 이 지역의 구체적 도시, 마을, 문화, 등장인물, 등 환경적인 측면의 묘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시기에 집필된 작품들이 『산 안드레스의 십자가』(*La cruz de San Andrés*, 1994), 『회양 목재』(*Madera de boj*, 1999)등인데 이 소설들에도 갈리시아에 대한 셀라의 애정과 사랑 그리고 관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셀라가 1930년대 갈리시아에서 “수 개월간 내란을 겪었다는 사실을 회고록 『이해와 의지』(*Entendimientos y Voluntades*, 1993)에서 그 경험을 상술하였고, 이 전쟁기의 갈리시아에서의 경험은 실생활에 영감을 주었으며 『두 망자를 위한 마주르카』에서 소설화 된다”⁸⁾고 자신의 경험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였다는 점이다. 1980년 셀라는 갈리시아 한림원(Real Academia Gallega)에 입성하게 되는데, 특히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중앙집권적 독재자 프랑코의 사망 후 민주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각 지역의 자치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재확인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자신의 고향 갈리시아에 포커스를 맞추기에 역사적 환경에서나 문화적 환경에서 적절한 시기였고 그 특정 시기에 『두 망자를 위한 마주르카』를 쓰게 된 것이다.

2. 갈리시아인 등장인물과 외지인 등장인물

『두 망자를 위한 마주르카』는 스페인 내전과, 내전 이전의 스페인 역사의 비극적 사건의 일단인 모로코 전쟁의 상처와 그 기억이 일정부분 신화화

8) 『두 망자를 위한 마주르카』와 두 편의 전신인 『별집』(*La Colmena*, 1951)과 『산 카밀로 1936』(*San Camillo 1936*, 1969)는 주제가 연결되어 있다. 이 두 편의 소설은 역사적으로 아주 특별하고 제한된 시점을 다루고 있다. 『산 카밀로 1936』은 스페인 내전의 발발을 다루고 『별집』은 내전이 남긴 쓰라리고 아픈 직접적인 영향을 다룬다.

되어 표현된,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세계가 뒤얽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쉽 없이 내리는 비속의 전원적인 모습의 갈리시아를 배경으로 전개되는데 육체적으로나 성적으로 매우 뛰어난 능력과 매력을 지닌 라사로 코데살이라는 등장인물이 모로코 전쟁 중 진지의 무화과나무 아래서 자위 행위를 하던 중 한 무어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시작된다. 라사로 코데살의 죽음은 다양한 사건들과 연결 고리를 이루며 작품 속에서 반복되어 언급되지만 작품 속에 드러나는 다양한 사건들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즐거리 파악과 관련하여, 작품 속의 수없이 많은 가문들과 인물들의 출현과 반복적인 이름들의 나열은 누가 누구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들며, 원형적이며 순환적인 반복 구조를 통해 즐거리의 일관성을 해체시키고 있어, 상황에 따라 불쑥 불쑥 일어나는 단편적인 사건들을 교직하고, 서술과정의 반복적 확인을 통해 그 즐거리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난해한 작품이다. 이 소설의 글쓰기 방식 속에는 고전과 전위, 전통과 실험이 공존하며, 파편화되고 분절된 여러 이야기 단위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교직되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살인과 이에 대한 복수라는 서사적 일화를 중심으로 소설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가문의 복잡한 역사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사건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갈리시아와 관련된 내란에 대한 이야기가 간헐적으로 반복된다.

스페인 내전과 관련된 파시스트 측 팔랑헤당 당원 협력자의 역할을 하는, 작품에서 무어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파비안 밉겔라 혹은 모우초는 갈리시아의 전통가문인 구신데스 가문 출신의 영웅, 앞에서 언급한 등장인물 라사로 코데살 혹은 아포우토를 살해한 살인자인데, 살해당한자의 가족에 의해 처절하게 복수를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 전개된다. 이 살인 이후에도 이 무어인은 12-13명의 구신데스 가문의 인물들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살해한다. 작품의 후반에 파비안 밉겔라는 이미 망자로 묘사되는데 전술한 희생자 가족의 일원인 아데가라는 여성이 부패해 가는 그의 사체를 무덤에서 파내어 돼지의 먹이로 제공하는 끔찍한 복수가 전개된다.

한참이 걸려서야 그 늪을 땅에서 파냈지요, 세 시간 이상이나 걸렸어
요. (...)나는 그 썩은 사체를 돼지에게 던져 주었고, 나중에 그 돼지를 잡

아 먹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일부는 훈제 햄으로도 만들어 먹고, 또 일부는 소시지, 머리고기로도 만들어 먹고. 부뚜막 연기로 훈제시킨 스페인식 햄과 등심으로, 비계로도 먹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답니다.(242)⁹⁾

이후 이 일가족은 이 돼지를 도살하여 여러 가지 요리를 해 친척들에게 나누어주고 먹어 치움으로써 복수한다는 내용이다. 구신데스 가문의 이 무어인, 즉 파비안 밉겔라, 혹은 모우초에 대한 복수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살아 있는 사람을 훈련된 개를 이용해 물어뜯어 죽이는 복수이다. 이 죽음은 갈리시아 전설에 등장하는 늑대인간에게 그가 물려죽었음을 암시하는 법의 시체 부검 소견과 더불어 사건의 실체는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내가 말하는데, 내가 널 죽일 것이다. (...)모우초가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한다. 타니스 가무소가 그에게 말한다. -너를 죽이는 건 내가 아니고, 산의 법칙이다. 나는 산의 법칙을 저버릴 수 없다. 타니스 가무소가 떨어져 나오자 술탄과 모리토가 충분히 정확하게 물어뜯는다. 한 번도 더 묻지 않았다. -이제 그만! 술탄과 모리토가 기뻐하듯 꼬리를 흔들며 망자를 풀어준다.(249)

전술한 바와 같이 파비안 밉겔라는 사건의 반대편 인물로 아웃사이더인 그는 갈리시아 중심의 구신데스 가문의 일족이 아니며 갈리시아인도 아니다. 파비안 밉겔라가 속해있는 카르로우포 집안은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되며 집단을 이루어 사는 밀집한 시골 공동체 농경중심의 사회에서 이방인이며 구체적으로 농경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는 경멸스러운 어조로 구두 수선공(zapatero)이라고 불린다. 그들의 신체적 특성도 매우 저분하고 혐오감이 들게 묘사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가문 사람들은 후레자식의 아홉 가지 표식을 갖고 있다거나, 돼지 껍질 같은 기이한 피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9) 이하 작품 인용은 Camilo Jose Celá, *Mazurca para dos muertos*, Barcelona: Editorial Seix Barral, 1983. 으로부터 쪽 수만 표시한다.

파비안 밉겔라는 당시 이 지역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비겁한 살인자로서 내전 발발시기에 파시스트들의 후광을 등에 업은 무법의 테러리스트로 묘사된다. 반면에 구신데스 집안의 인물들은 영웅적으로 묘사되는데 그들은 건강하고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진정한 의미의 갈리시아 토착 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들은 갈리시아 토종집안으로, 셀라 집안, 모란 집안, 레보산 집안 등 모두가 범 구신데스 가문에 포함하는 거대 집안이다. 즉, 갈리시아 토종가문과 외지에서 들어온 가문과의 기나긴, 끈질기고 잔인한 싸움이다.

작품속의 갈리시아 출신 인물들은 문화를 공유하며 그들은 더럽혀진 명예는 피로, 죽음으로 되갚는 복수 “산의 법칙(ley del monte)”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며, 이 산의 법칙은 그들이 행동하게 하는 추진체로 기능한다.”¹⁰⁾ 결국 작품은 이 가문의 인물들을 통해 갈리시아라는 지역 중에서도 특정지역의 정서와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삶의 모습을 체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산의 법칙들에 의해 지배 받는 그들의 풍습과 삶을 멈추지 못하며, 그 땅에서는 인간이 만든 명문화된 법이 아닌 산의 법칙이나 자연의 법칙이 우선적으로 작동한다.

또한 작품 속에는 갈리시아의 민속이나 전통적인 요소들과 신화와 전설들이 다양하게 언급되며, 특히 전원적 환경 속에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 지역의 인물들이 그려진다. 실질적으로 작품의 페이지들을 통해 명멸하는 인물들은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죽어갈 땅에 얽매어 단조롭게 살 운명들을 타고난 미천한 존재들인 것이다. 살인자와 살해당한 자, 바보, 창녀, 도둑, 맹인, 정신질환자, 절름발이, 거세된 저능아, 병어이이거나 노쇠한자들로 누군가의 나쁜 술책이나 폭력을 동반한 권력 남용에 굴복당한 사람들이다.

작가에 의해 창조된 이 작품 속의 수 백 여명의 등장인물들¹¹⁾의 활동배

10) Ana María Platas Tasende, 「Galicia en la obra de Cela」, *Hispanica*, 2006, p. 418.

11) 마누엘 프라가 이리바르네는 “셀라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수많은 허구의 등장인물들이 작가의 고향 이리아 플라비아 에서의 생활에서 영감을 받았고 그곳 사람들에게서 계시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Manuel Fraga Iribarne, “Hado y fortuna de un señor de Iria Flavia”, *II Curso de Verano de La Fundación Camilo José Cela*, 1997, p.19.

경은 장님 아코디언 연주가 가우텐시오가 생을 영위하는 오렌세의 파로차라는 매음굴과 피노르 데 세아라는 자치지구의 마을들이다. 작가 셀라는 갈리시아의 오렌세에서도 지리적으로 가장 깊은 곳, 루고와 포르투갈의 경계선 사이에 위치하는 현대화 되지 않는 시골구석에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을 배치시키며 그들에게 갈리시아어와 이 지역 방언 문구들을 말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갈리시아적인 것과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간다.

3. 작품에 나타난 갈리시아의 자연현상 비, 지명, 갈리시아어¹²⁾, 갈리시아 출신 문인들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섬 없이 내리는 비에 대한 수 없이 반복되는 묘사와 언급은 이 지역 갈리시아의 시적이고 신비적인 세계관과 평범하지 않는 비일상적인 생활과의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장치이다.

가랑비가 가족들 위로, 사람들 위로, 가축들 위로, 야생동물들 위로, 남자들과 여자들 위로, 부모들과 자식들 위로, 건강한 자들과 병자들 위로, 땅에 묻힌 사람들 위로, 유배된자들 위로, 여행자들 위로 보슬보슬 내린다. 피가 혈관을 타고 흐르듯 이슬비가 내린다.(76-77)

침묵의 순간 혹은 처절한 복수극의 피비린내 나는 상황들의 전개과정 전과 후에도 항상 빠짐없이 하나의 배경음악처럼 가랑비가 내리는 장면이 묘사된다. 1년 중 200일 가까이 비가 온다는 갈리시아의 특징적인 기후 현상인 가랑비가 있고, 그 가랑비는 갈리시아의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이 특이한 기상 현상은 끝없는 탄원기도처럼 진행형이며, 통제 불가능에 가까운 자

12) 갈리시아어에서 기원한 다양한 별명들, 아포우토(Afouto)는 용감한 자valiente를 의미하고, 믹시리케이로(Mixiriqueiro)는 엄살쟁이quejicoso, 모우초(Moucho)는 부영이buho, 파로차(Parrocha), 작은 정어리sardina pequena, 등이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갈리시아어 단어들, 예를 들면 내장장수(Tripeiro), 수다쟁이(Cachifa), 뺨질이(Perello), 옥수수껍질(Carocha), 생쥐(Furelo), 재미있는 사람(Chupeteiro), 미친 암양(Cabuxa Tola), 약삭빠른 놈(Paxarolo), 전갈(Lacrau), 게으름뱅이(Preguizas) 등의 단어들도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또한 작품의 중간 중간에 300여 개의 갈리시아어 단어들, 카스티야어와 뒤섞여 있다.

제한 수 없는 인간들의 삶에 대한 끝없는 열정들은 작품이라는 무대에서 비와 평행선을 이루고 그 속에서 『두 망자를 위한 마주르카』의 다양한 소재들이 조화를 이루어 전개되어 간다.

물에 빠져 곧 바로 죽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신음하는 베르문 개천 위로 비가 내린다. 강물 다섯 개 위로, 발도 바르네이로 평원에서 미끄러져 나온 비냐오 강, 크레고스 바위산에서 비롯된 아스네이로스 강, 수도사들의 몸의 열기를 식혀주는 오세이라 강, 라포사 랑가다 길을 따라 북쪽으로 달아나는 코메소 강, 아그로산티노의 짧은 처녀들이 손수건을 빼는 부랄강위로 비가 내린다.(219)

작가는 쉽 없이 부드럽게 흐르듯이 내리는 비와 작품속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열정 사이에 일종의 동시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다시 말해 등장인물들의 구체적 행위, 특히 싸움이나 혹은 폭력행위들이 일어나고 나면 바로 어김없이 비가 오는 모습이 그려진다. 즉 작품 속에 묘사되는 비는 등장인물들의 행위의 시작이나 후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으로 작품 전개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슬픔과 우수가 흐르는 갈리시아의 풍경으로 평화로움과 안정의 상징물이 된다.

풀 위로, 지붕 위로, 유리창 위로, 끝도 없이 차분하게 비가 내린다. 비는 내리지만 춤지는 않다. 말하자면 그렇게 많이 춤지는 않다는 것이다. 내가 바이올린을 켤 줄 안다면 오후 내내 바이올린을 쳤을 것이다. 내가 하모니카를 불 줄 안다면 오전과 오후 내내 하모니카를 불었을 것이다. 내가 아코디언을 켤 줄 안다면, 오전이고, 오후고, 저녁이고 그걸 켜면서 보낼텐데. (225)

이렇듯 반복되는 비가 내리는 모습은 탄원 기도와 같은 시적 구조를 이루며, 다양한 서술상 주제와 소재 그리고 등장인물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모티프가 된다. 즉 비가 내리는 모습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묘사는 다수의 화자와 등장인물들과 작품의 전개 과정에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관련 없는 일화들을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셀라가 이 소설에서 불러들인 인물들은 시간의 흐름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사건들처럼 끈질기고 쉽 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살아가는 갈리시아 사람들이다. 작가가 작품 속에서 내리게 만드는 비는 계절에 관계없이 살아있는 생명체들 위로, 그들이 사는 대지위로 지칠 줄 모르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내린다. 소설 전체의 전개 과정에서 수 십 번이나 반복되는 끝없이 내리는 비는 슬프고도 애절한 갈리시아의 음울한 풍경의 상징으로 다가온다. 이와 더불어 오렌세, 루고, 폰테베드라, 라 코루냐 등등의 갈리시아 지역의 명칭들이 작품의 전개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이 지역의 여러 도시들과 마을들과 고을들의 이름들, 강 이름들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전술한 지문에서 거론된 강들 이외에도 폰테베드라와 코루냐의 바르반사 반도까지 펼쳐지는 리아 강,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거쳐 흐르는 리미아 강 등에 대한 작품 속에서의 구체적 언급들은 셀라의 이 작품의 거의 모든 하위 주제들과 소재들이 갈리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 속에 드러나는 또 다른 갈리시아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특히 이 지역 출신의 작가들과 작품명들의 거론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오렌세 출신으로 갈리시아어와 스페인어로 시작 활동을 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떠나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쿠바에 정착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들을 썼던 마누엘 쿠르로스 엔리케스(Manuel Curros Enríquez), 폰테베드라에서 태어나 주로 갈리시아어로 이 지역의 해변 풍경과 어촌 사람들의 삶을 작품을 통해 그렸으며 갈리시아만의 독자적 정체성 확립과 그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시인 라몬 카바니야스(Ramón Cabanillas), 오렌세의 미노강변에서 태어나 18세기 스페인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평가 받으며 명쾌한 문체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철학, 예술, 신학, 자연과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비판적 저술활동으로 유명한 프라이 베니토 헤로니모 페이후(Fray Benito Jerónimo Feijoo), 오렌세 출신의 재정가이며 작가였던 모데스토 페르난데스 이 곤살레스(Modesto Fernández y González), 폰테베드라에서 출생하여 소위 20세기 스페인문학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던 98세대의 구성원으로 극작가이며 수필가로 절대미의 발견을 추구했던 라몬 마리아 델 바예 인클란(Ramón María del Valle Inclán) 등과 같은 갈리시아 출신의 작가들에 대한 언급이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작가는 자신의 작품의 본문에서 로빈 레보산이라는 등장인물과 로시클레르라는 등장

인물의 대화를 통해 19세기 갈리시아 지방이 낳은, 갈리시아어와 카스티야어로 작품을 썼던 스페인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 시인이며 소설가인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¹³⁾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로빈 레보산은 라모나 아가씨에게 시집을 빌려준다. 로살리아가 『사르 강변에서』라는 시집을 썼을 때는 이미, 다른 강보다 가장 가까운 우야강 근처, 서부 역 앞 라 마탄사에서 살고 있었다. 『사르 강변에서』는 스페인어로 씌어졌고, 『새로운 잎새들』은 갈리시아어로 씌어졌다. 두 시집 모두 아름답고 훌륭한 영감을 지닌 작품들이며, 『사르 강변에서』는 로살리아가 죽기 조금 전에 출판되었다. 그녀는 오래 살지 못했으며, 채 신살도 채우지 못했다.(55)

이렇듯 로살리아와 관련된 실제 자전적 지식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생애에 대한 구체적 언급과 작품들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을 줄줄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갈리시아적인 특징들의 다양한 면모를 작품을 통해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4. 작품에 나타난 갈리시아의 전설과 미신

또한 작품에는 갈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떠도는 다양한 신화와 전설들이 드러난다.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성지순례지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먼저 작품의 강독을 통해 산 안드레스 성지인 테이시도와 관련된 전설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설에 따르면 성인 안드레스도 예수의 제자 중 한사람이었으나, 이 안드레스의 성지 테이시도는 대서양과 접해있고 험준한 곳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파도

13)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Rosalía de Castro, 1837-1885), 스페인 갈리시아의 대표 여류시인이다. 갈리시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갈리시아의 노래』(*Cantares gallegos*, 1863)로 유명해졌으며, 갈리시아어로 출판한 『새로운 잎새들』(*Follas Novas*, 1880)에서는 삶의 고통과 환멸을 담아냈다. 그 외 『사르 강변에서』(*En las orillas del Sar*, 1884)는 스페인어로 출판한 대표적인 서정시로 시인 자신의 내적 고통을 담아냈다. 베케르와 그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증명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나 바람 같은 위험한 자연현상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반면 같은 갈리시아 지역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산티아고 성지에는 스페인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수많은 참배객들이 찾지만 산 안드레스 성지에는 그렇지 못했다. 성자 안드레스가 어느 날 자신의 성지를 찾지 않음에 실망하여 터덜터덜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슬퍼하는 모습의 안드레스에게 슬픔의 이유를 물었고, 그는 자신의 슬픔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명하였다. 그 설명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산 안드레스에게 그 날 이후로 모든 이들은 산 안드레스의 성지를 죽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참배하도록 할 것이며 참배하지 아니한 자는 하늘에 오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만약 살아서 안드레스 성지를 참배하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한 번은 꼭 참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¹⁴⁾는데 그 약속과 질문, 그리고 응답의 과정을 작가는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같이 길을 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했다. -안드레스야 네 말이 전적으로 맞구나, 이걸 해결해야겠구나. 이제부터는 테이시도에 들르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준비시키겠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지켰고, 영혼을 구원받고 싶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말하자면 이성 없는 짐승이 되더라도, 적어도 한 번은 그곳 성지는 순례하도록 했다. 그래서 성안드레스의 테이시도에는 살아서 못가면 죽어서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다.(136)

또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수 세기 전부터 떠도는 늑대 인간이나 마녀에 대한 전설도 전형적인 갈리시아적인 것들로 분류할 수 있는 요소들인데 이 요소들도 작품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갈리시아에는 늑대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전설이 존재한다. 아버지의 저주로 늑대로 변해버린 아들을 구해 다시 인간으로 환생시키기 위해 마녀의 충고를 받아 들여, 깊은 산으로 들어가 늑대 떼들과 함께 살아가던 아들을 구출하여 세상으로 되돌아오게

14) Leandro Carré Alvarellos, *Las leyendas tradicionales gallegas*, Madrid: Espasa Calpe, 2007, pp. 102-104.

한 아버지에 대한 전설, 고아간 된 자신을 거두어 준 양아버지를 죽인 양아버지의 동생을 개들을 데리고 가 물어뜯게 하여 죽이고 복수한 후 산으로 숨어 들어가 산적의 우두머리가 되어, 특히 당대의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 상류 계층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면서 살았으나, 당시 갈리시아의 가난한 농민들은 그녀에게서 동질감과 존경심을 느꼈다고 전해지는 여자 산적, 늑대 여인 페파¹⁵⁾에 대한 전설이 언급된다. 또한 부자들의 돈을 훔쳐 빈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의적 산 키토에 대한 전설, 19세기 늑대인간으로 알려진 연쇄 살인범 로마산타에 대한 떠도는 전설들이 작품에 인용된다.

이곳 산에는 희생자의 시신의 배를 가르다는 마누엘 블랑코 로마산타가 돌아다녔다. 그는 열 두 명의 수도사를 입으로 물어뜯어 죽인 늑대 인간이었다. (...)이것은 벌써 오래 전 일로, 100년도 더 되는 이야기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81)

-당신은 늑대 여인 페파와 산 키토의 이야기를 아세요?" -그럼요, 트루코와 로우샤오, 벤토세예의 이야기도요. -그럼, 죽어서 땅에 묻힌 돈 많은 원주민의 옷을 입었다는 마메드 카사노바의 이야기는요? -그럼, 알지요. 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안답니다.(232)

또한 오늘날까지도 갈리시아의 산골 마을이나 고립된 지역들에서 나이든 이들은 마녀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전해지는데, 전설에 의하면 마녀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소유하며 그녀들은 죽은 가족이나 친지들과 대화할 수 있고 어린이 들이나 나이든 노인들에게 질병을 야기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녀의 능력 중 부정적인 능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마녀를 퇴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의 문에다 암소의 뿔이나 숫양의 뿔을 매달아 놓는다든지 창문에 놓아둔다는 것이다. 어부들은 이것들을 선박에다 놓아두며, 또 어떤 이들은 멧돼지나 돼지의 이빨을 마녀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매달아두는 물건으로 사용한다.”¹⁶⁾고 하는데 이러한 전설이나 미신도 충분히 기이하고 흥미로운 갈리시아적인 요소로 작품에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15) <https://misteriosleyendasdegaliciayasturias.wordpress.com/>

16) http://is.muni.cz/th/110308/ff_b/Bakalarska_prace.pdf

문초 프레기사스의 말에 따르면 바스티아니노 해변에서 매우 이상한 조개들을 발견했는데(...), 그 조개에는 꽤 강한 독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지는 못하지만 그 조개에 원기를 불어넣으면 조개가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작은 마녀가 날아 나온다. 그 마녀는 매우 많이 달리고 아주 높이까지 날기 때문에 붙잡기가 힘들다. 루고 사람들은 그 마녀를 붙잡을 줄 알지만 우리 오펜세 사람들은 그 일에 아주 서투르다. 부뚜막에서 마녀의 물기를 말리고 마녀가 여자의 크기로 성장하면 그녀들에게 봉사하도록 한다.(130)

한 때 갈리시아 한 지역을 다스리던 루파 여왕과 관련된 전설도 이 작품을 통해 언급되고 있다. 어느 날 예수의 제자들이 성자 야고보 사도의 시신을 배에 싣고, 갈리시아 해변으로 가져와 매장하려고 그의 시신을 운반할 수레와 황소들을 구하러 갔다가 당시 갈리시아를 다스리던 루파 여왕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혀 목숨이 위태로워 졌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이 기적에 감탄한 루파 여왕이 예수의 제자들을 풀어주었고, 자신의 신전을 철거하라고 명령하고 그녀 스스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는 전설이 있다.¹⁷⁾

루파 여왕과 관련된 전설의 또 다른 버전은, 그녀의 지하 감옥에 가두어 놓은 그리스도 교도들에게 최고의 형벌을 내리고 이를 축하하고 있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녀의 장남이 장님이었다고 한다. 그녀가 데리고 있었던 동정녀들 중의 한명이 만약 이 모든 죄수들을 감옥에서 석방해 주면 그녀의 아들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루파 여왕은 그 동정녀의 예언대로 기독교도들을 완전한 자유인으로 풀어주었고 그녀의 아들은 시력을 회복하였다.¹⁸⁾고 한다. 또한 작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텔라 호수에 관한 전설, 즉 물속에 가라앉은 도시에 대한 전설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안텔라 호수는 리미아 강의 지류에 속해있는 스페인에서 가장 큰 호수로 로마시대 때부터 존재하였는데, 19세기부터 메마르기 시작해 현재는 완전히 메말랐지만 이 호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설이 있다.

2053년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안텔라 호수는 인간이 메마르게

17) Leandro Carré Alvellos, *op.cit.*, pp. 85-87.

18) <http://hacheron-fasediez.blogspot.kr/p/leyendas-gallegas.html>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때, 물 대신에 재난과 질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이 사라지면 인간은 광물을 찾아 땅바닥을 팔 것이고, 그때 흙 대신에 굶주림과 죽음만이 있을 것이다>>.(46)

-안텔라 호수의 깊고 깊은 밑바닥에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지요. 안텔라 호수를 건넌 사람은 기억을 잃으며 영원한 형벌을 받으니까요. 신과 성자들은 기억을 아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기억을 잃은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없답니다.(235)

그 중에는 호수 밑에 가라앉은 안티오키아 도시에 대한 전설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갈리시아 루고에 베이라라는 곳에 라마스 데 고아라는 연못이 있었고, 수 백 년 전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 이 연못이 메마른 후 연못 바닥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 즉 거대한 나무 들보들, 비석들, 질그릇, 냄비들 등 물에 잠긴 집들에서 유래했음이 분명한 집기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성모 마리아가 어느 날 베이라에 도착해서 살펴보니, 그 곳에는 기독교도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인 사원이나 교회가 전혀 없어 놀라서 한 여인을 만나 물었더니,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이교도들이고 목재나 돌 등의 형상을 숭배하며 축제의 날에는 남녀가 서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길거리를 고성방가하며 돌아다니는 퇴폐한 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듣는다. 이후 방탕하고 문란한 이곳의 생활에 물드는 기독교인들을 막기 위해 성모 마리아가 이 도시의 집과 채소밭과 사람들 위로 하늘에서 비를 쏟아 범람시키라고 주문을 외자 곧장 강력하고 집중적인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 도시는 영원히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⁹⁾ 또 다른 버전은 갈리시아 코스페이토라는 한 마을의 산자락 오리들의 연못, 혹은 발베르테라는 곳에 있는 한 마을에 성모마리아가 걸인의 행색으로 방문하여 잘 곳과 먹을 것을 구하였으나, 마을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숙소와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마을 귀퉁이에 가난하게 사는 한 사람이 자신이 기르고 있던 유일한 재산이었던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저녁식사로 대접하고 극진히 모시자 감동한 성모 마리아께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의 집을 가축으로 가득 차게 해

19) Leandro Carré Alvarellos, *op.cit.*, pp. 98-100.

주고,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려 물속에 가라 앉혔는데 가뭄이 들 때면 과거 수몰되기 전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이 발견된다는 전설이 있다.²⁰⁾

한편 가족 제도와 관련된 갈리시아인들의 범신론적 관점의 승배와 민간 신앙의 발현은 밤에 교구 공동묘지를 떠나 임종을 앞둔 사람을 예방하는 망자들의 야간행렬 산타 콤파냐인데 이것도 갈리시아의 토착신앙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구천을 헤매고 떠도는 영혼들의 행렬을 가리킨다. 전설에 의하면 망자들의 야간행렬이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행렬에는 임종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후손이 참가하게 되고, 이 후손의 모든 조상들이 이 행렬에 또한 참가하여 후손에게 이제 지상에서의 시간이 다 되었으니 같이 다른 세상으로 가자고 말하며, 이 후손이 죽자마자 바로 혼령을 수습하여 그들이 데려간다는 것이다.²¹⁾ 이러한 민간신앙이나 범신론적 관점의 세계관과 관련된 제 의식들도 모두 전형적인 갈리시아의 특징적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은 작가가 갖고 있는 갈리시아 지방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정체성의 일단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III. 결론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인 공간성은 작품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인데 이 작품의 공간이 갖고 있는 특징적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작가 셀라가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갈리시아 지역성의 일부를 확인해보았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셀라는 자신의 초기 작품들과 후기 작품들에서 고향 갈리시아를 구체적으로 체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두 망자를 위한 마주르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셀라는 갈리시아지방 중에서도 현대화 되지 않는 시골에다 이 소설의 인물들을 배치시키고, 그들에게 갈리시아어와 이 지역 방언들을 말할 기

20) <http://hacheron-fasediez.blogspot.kr/p/leyendas-gallegas.html>

21) Leandro Carré Alvarellos, *op.cit.*, pp. 58-59.

회를 부여함으로써 갈리시아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한편 이 지역을 중심으로 떠도는 신화와 전설, 그리고 미신적 제 요소에 대한 언급, 이 지역의 특징적 자연현상으로 간주되는 쉬지 않고 내리는 비에 대한 수십 번의 묘사를 통해 갈리시아성을 구체적으로 체현한다.

또한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이 지역의 여러 도시들과 마을들의 이름들, 강 이름들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이 작품 속에 드러나는 또 다른 갈리시아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특히 지역 출신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 명들의 거론이다. 이렇듯 이 작품의 거의 모든 하위 주제들과 소재들이 갈리시아와 관계된 것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셀라가 갈리시아 출신 작가로서의 정체성의 일부를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 참고문헌

- 박효영, 「사실주의 및 자연주의 소설에 나타난 지역성」, 『스페인어문학』, 36호, 2005.
- 송선기, 「페레다와 아소린의 작품을 통해 본 스페인 정체성」, 『스페인어문학』, 44호, 2007.
- 송선기,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의 바다의 딸에 나타난 갈리시아의 자연과 인간」, 『비교문화연구』, 41호, 2015.
- 권미선, 「두 망자를 위한 마주르카에 드러난 카니발적 세계관」, 『이베로아메리카』,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2010.
- 존 H. 엘리엇, 편집, 『히스패닉 세계』 김원중 외 옮김, 새물결, 2003.
- ANXO MURADO, Miguel, Otra idea de Galicia, Barcelona: Debate, 2014.
- BASANTA, Angel, La novela española de nuestra época, Madrid: Anaya, 1990.
- BERAMENDI, Justo, G., El nacionalismo gallego, Madrid: Arco Libros, 1997.
- CABALLO CALERO, Ricardo, Aportaciones a la literatura gallega contemporánea, Madrid: Gredos, 1955.
- CABAÑAS, Pablo, “Camilo José Cela, novelista”, Cuadernos de Literatura, II, 1947.
- CARRE ALVARELLOS, Leandro, Las leyendas tradicionales gallegas, Madrid: Espasa Calpe, 2007.
- CASERES, C., “Cela, Galicia y galleguismos”, Insula, 1990.
- CELA, Camilo José, Mazurca para dos muertos, Barcelona: Editorial Seix Barral, 1983.
- COUSILLAS RODRIGUEZ, Manuel, “Rasgos celticos en la mitología y en el folclore de la Costa da Morte”, Etnoarqueología, 2007.
- GALE, Judith E., El regionalismo en la obra de José María de Pereda, Madrid: Editorial Pliegos, 1990.
- ILLE, Paul, La novelística de Camilo José Cela, Madrid: Gredos, 1978.
- IRIBARNE, Manuel Fraga, “Hado y fortuna de un soñador de Iria Flavia”, en II Curso de Verano de La Fundación Camilo José Cela, 1997.

- J. M. Castellet, “Camilo José Cela: la vida y obra”, Revista Hispánica Moderna, XXVIII, 1962.
- LOSADA, B., “Cela, escritor gallego”, Insula, 1990.
- SANCHEZ SALAS, Gaspar, Apuntaciones críticos sobre la obra de Camilo José Cela, Barcelona: Ediciones Carena, 2004.
- TASCINDE, Ana María, Camilo José Cela, Madrid: Editorial Síntesis, 2004.
- _____, “Galicia en la obra de Camilo José Cela”, HISP. XX-23, 2006.
- VILLANUEVA, Darío, “La personalidad y el arte literarios de Camilo José Cela”, Boletín Aepe, Número 32-33, 1985.
- WASSERMAN, Carol, Camilo José Cela y su trayectoria literaria, Madrid: Editorial Playor, 1990.
- ZAVALA, Iris M., “Romanticismo y realismo” en Historia y crítica de la literatura española, Barcelona: Crítica, 2001.
- http://es.wikipedia.org/wiki/D%C3%ADa_de_las_Letras_Gallegas(검색일: 2018.08.12.)
- <http://hacheron-fasediez.blogspot.kr/p/leyendas-gallegas.html>(검색일: 2018.09.07.)
- http://www.cervantesvirtual.com/portal/romanticismo/actas_pdf/romanticismo_3_4/mayoral.pdf(검색일: 2017.08.12.)
- http://is.muni.cz/th/110308/ff_b/Bakalarska_prace.pdf.pdf(검색일: 2017.11.28.)
- <https://misteriosleyendasdegaliciayasturias.wordpress.com/>(검색일: 2018, 08.20.)
- <http://hacheron-fasediez.blogspot.kr/p/leyendas-gallegas.html>(검색일: 2018.09.07.)

❖ ABSTRACT

Galicia's Characteristic Elements in Camilo José Cela's
Mazurca para dos muertos

Song, Sun-ki

Camilo José Cela's hometown Galicia has frequently appeared as the spatial background in his early and later works, revealing various factors related to the area in detail. It is in 『*Mazurca para dos muertos*』 that Galicia's characteristic elements appear most strikingly among his works.

Several distinctive elements of Galicia are revealed in this work. First, the author shows some of Galicia's features by placing his characters in a Galician rural village and giving them the opportunity to speak local dialects. Second, Galician characteristic nature is specifically embodied through the dozens of depictions of nonstop rain. Third, the author has made the link between his work and Galicia by mentioning names of many Galician cities, villages, rivers and local writers and their works. Fourth, various Galician characteristic features, such as numerous myths, legends, and superstitions surrounding around this region are mentioned through the work. As such, almost all the sub-themes and materials of this work center on things associated with Galicia. This analysis provides for the realization that Cela reveals his identity as a Galician-born writer through this work.

Key Words : Camilo José Cela, *Mazurca para dos muertos*,
Galicia, characteristic elements

■ 논문접수일 : 2018. 11. 10

■ 심사완료일 : 2018. 11. 30

■ 게재확정일 : 2018. 12. 12